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 14.(목) 06:00 < 11.14.(목) 석간 > 배포 2024. 11. 13.(수)

한국,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로 도약 가속화

-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상업운전 개시
- 총 440만 배럴 규모 탱크터미널 임대계약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1.14.(목)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금일 행사는 그간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건설에 기여해온 한국석유공사, SK가스, 울산시, 울산항만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참석하에 개최되었다.

금일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은 크게 아래 세 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① (동북아 에너지 거점) 동 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 준공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된 국내 에너지 거점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조건 등을 기반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여수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 터미널 또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② (복합 터미널) 동 터미널은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 에너지터미널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석유 중심의 모델에서,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복합 터미널로 추진되었다. 변화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적 모델로 거듭난 만큼, 향후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터미널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③ (성공적 민·관 협력) 동 터미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이다. 정부는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종합보세구역 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 등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앞장서 왔으며, 한국석유공사는 대규모 국가기반사업인 석유 비축기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터미널 설계·건설에 기여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인 SK가스는 울산 지역의 민간 LNG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울산 첫 번째 LNG 터미널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터미널의 상업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현재 석유·가스 저장시설(총 440만 배럴) 모두 대여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17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 제품 트레이딩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270만 배럴 규모(20만톤)의 가스 저장시설은 울산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의 신규 발전·산업 연료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남호 2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정책적 노력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모범사례”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에너지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해나가고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당부하였다. 금일 준공식에서 최남호 차관은 그간 터미널 준공에 기여한 한국석유공사, SK가스, 울산항만공사 등에게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그간 공로를 치하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보충 설명 >

❶ 동북아에너지허브 정책

동북아 지역 신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항만조건 등을 기반으로 역내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08년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총 3단계로 국내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첫 번째 단계로 '13년 여수에 82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춘 오일허브코리아여수를 건설하였으며,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울산 북항의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민·관의 노력 끝에 '24.11월 본격적으로 상업운영을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로 울산 남항에 터미널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요와 상업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❷ 울산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사업

'08년부터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약 16년여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다. 당초 석유 터미널로 추진되었으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17년부터 석유·가스 복합 터미널로 사업전략을 전환하였다. '20년 7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착공하였으며, '24년 11월 약 440만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저장시설이 준공(석유 저장탱크 12기, 가스 저장탱크 2기)되었다. 현재 가스저장탱크 1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26년 완공시 총 575만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저장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❸ 그간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하였다. △'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 반출시,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제·부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 이후,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소재한 터미널에서 자유롭게 블렌딩*할 수 있게 되었다.

* 서로 다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최종 수요자의 품질기준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붙임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식 개요**

1. 추진배경

□ 정부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북항에 **석유·가스 복합 에너지 저장시설을 구축** 추진

□ '24.11월 석유 및 LNG시설 **본격 상업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코리아 에너지터미널 준공식 개최**

2. 행사 개요

□ **(일시)** '24.11.14(목), 10:45~11:45

□ **(장소)**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울산 남구 신항로 852번길 41)

□ **(주최/주관)** :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 한국석유공사·SK가스

□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석유공사 사장, SK가스 사장, KET 대표, 울산시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

< 세부 행사계획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45~10:55	(10')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55~11:00	(5')	▸ 홍보영상 시청	-
11:00~11:05	(5')	▸ KET 경과보고	KET 대표이사
11:05~11:20	(15')	▸ 축사 및 환영사	2차관, 울산시장 등
11:20~11:25	(5')	▸ 유공자 포상 및 감사패 전달	2차관, 석유공사, SK가스 등
11:25~11:30	(5')	▸ 테이프 커팅식	2차관, 내외 귀빈
11:30~11:35	(5')	▸ 기념식수 및 폐식	
11:35~11:45	(10')	▸ KET 현장시찰	